

## 독일어의 주어 - 정동사 일치에 대한 교수

전경재 (한양대)

### 국문요약

독일어의 주어-정동사 일치는 내용도 아주 복잡할 뿐 아니라 한국어에 상응물도 없기 때문에, 한국인 학습자에게 많은 어려움을 준다. 본고에서는 독일어의 주어-정동사 일치의 여러 현상들 중에서 주어가 접속사와 함께 쓰인 세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

인칭이 서로 다른 두 표현이 und로 결합된 구성체가 주어인 경우, 일반적으로 영엘의 규칙이 적용되지만, 제2인칭과 제3인칭의 결합체의 경우에는 정동사를 제3인칭으로 쓰기도 한다. 두 단수 표현의 und-결합체가 주어로서 정동사와 형식상의 일치가 아니라 의미상의 일치를 이루면, 정동사는 단수형으로 쓴다.

nicht nur - sondern auch의 경우, 이것을 지닌 문장은 두 표현이 접속사로 결합된 주어를 지닌 단문이 아니라 두 단문이 결합되면서 공통된 부분이 생략되어 만들어진 응축문이다. 이에 따라 정동사는 항상 복수형인 것이 아니고, sondern auch의 뒤에 있는 표현이 단수이면, 정동사도 단수형이다.

두 단수 표현의 oder-결합체가 주어일 때, 배제의 oder의 경우에는 정동사의 단수형만 가능하지만, 포함의 oder의 경우에는 정동사를 복수형으로도 쓸 수 있다. 수가 서로 다른 두 제3인칭 표현의 oder-결합체가 주어일 때, 정동사에 보다 더 가까이 있는 표현이 단수이면, 정동사는 일반적으로 복수형을 쓰지만 단수형을 쓸 수도 있다.

교수자가 이런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학습자에게 주어가 접속사와 함께 쓰인 경우의 주어-정동사 일치에 대해 보다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학습자가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작아질 것이다.

**주제어:** 일치, 인칭, 수, 정동사, 응축문

## I. 앞서 하는 말

부스만은 통사론 분야의 일치 **Kongruenz**를 두 개나 여러 개의 문장 요소들이 형태통사론적 범주들 (격, 인칭, 수, 성)에 있어서 서로 어긋나지 않고 꼭 맞는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통사론 분야의 일치를 크게 문법적 일치와 역행지시상의 일치<sup>1)</sup>로 분류한 후, 전자를 다시 동사 관련 일치, 명사구 일치, 보어 관련 일치의 세 종류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이들 중 동사 관련 일치는 어형이 변화되는 술어 부분<sup>2)</sup>이 문장의 어떤 요소와 일치를 이루는 현상을 말하는데, 언어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다고 한다. 많은 언어에서는 정동사가 주어와 일치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대개는 인칭과 수에 있어서 일치가 이루어지지만, 드물게 러시아어에서처럼 이 두 범주 외에 성에서도 일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며, 이런 언어들과는 달리 정동사가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와 일치를 이루는 언어들도 있다고 한다(Bußmann 2008: 357).

독일어는 부스만에서 소개된 모든 종류의 일치가 다 존재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독일어 교수 내지 독일어 학습에 있어서 일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수 없다. 독일어의 여러 일치 중에서 동사 관련 일치가 가장 중요한데, 주지하다시피 독일어에서는 정동사가 주어와 인칭 및 수에 있어서 일치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간 복잡한 게 아니어서,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더군다나 한국어에는 독일어의 이런 주어와 정동사의 일치에 상응하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한국인 학습자에게 독일어의 동사 관련 일치는 더더욱 어렵게 여겨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이와 관련된 여러 유형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 
- 1) ‘anaphorische Kongruenz’의 번역어이다. 이것은 문장의 경계들을 벗어난 일치로서, 예컨대 ‘Eine junge Frau betrat den Raum. Sie trug einen Korb am Arm.’에서 대명사와 연관 명사구가 동일 대상을 지시하는 현상을 말한다.
  - 2) ‘정동사’로 부르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독일어의 주어와 정동사의 일치 현상들 중에서 주어가 접속사와 함께 쓰인 경우에 국한시켜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 광범위한 분야를 여기서 다 자세히 다룰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당 경우가 이 분야에서 내용이 가장 복잡할 뿐 아니라, 해당 경우의 여러 사항들에 있어서 통일된 견해도 없어서,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큰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 II. und

엔겔은 **und**로 결합된 주어 부분들의 인칭이 서로 다르면, 제1인칭이 제2인칭을 지배하고, (제1인칭과) 제2인칭이 제3인칭을 지배한다는 규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주어를 지닌 문장의 정동사는 지배 인칭에 따라 복수형을 취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이들의 기반에 있는 공식들을 기술하고 있다(Engel 1996: 815).

Ich und du haben nachgedacht. (1. + 2. Person  $\Rightarrow$  1. Person beim Verb)

Wir und ihr haben nachgedacht. (1. + 2. Person  $\Rightarrow$  1. Person beim Verb)

Du und er habt nachgedacht. (2. + 3. Person  $\Rightarrow$  2. Person beim Verb)

Ihr und sie habt nachgedacht. (2. + 3. Person  $\Rightarrow$  2. Person beim Verb)

이런 규칙을 모르는 학습자는 주어가 제1인칭 표현과 제2인칭 표현이 **und**로 결합되어 있는 구성체인데도 다음과 같이 정동사를 제2인칭 복수형으로 쓰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1) \*Ich und du seid sehr guten Freunde.

(2) \*Ich und ihr habt zusammen in Deutschland gewohnt.

(3) \*Wir und ihr seid glücklich nicht gestorben.

이와 달리, 제1인칭 표현과 제3인칭 표현이 **und**로 결합되어 있는 구성체가 주어인 경우에는, 이런 규칙을 모르는 학습자도 다음과 같이 항상 옳은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정동사의 제1인칭 복수형과 제3인칭 복수형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4) Ich und er sind immer sehr fleißig.

(5) Wir und sie haben jetzt keinen Kontakt.

주어가 제2인칭 표현과 제3인칭 표현이 **und**로 결합되어 있는 구성체인 경우에는 영겔의 규칙이 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헬비히/부샤는, 주어가 이런 구성을 보이면, 정동사가 흔히 제2인칭 복수형을 취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따금 제3인칭 복수형<sup>3)</sup>을 취하기도 한다고 하면서, 전자의 실례로 (6)을, 후자의 실례로 (7)을 들고 있다 (Helbig/Buscha 1996: 30).

(6) Mein Bruder und du habt die Versammlung besucht.

(7) Du und deine Schwester werden eine große Portion bekommen.

용도 이런 구성체가 주어일 때 정동사는 두 가지 형태가 다 쓰인다고 하면서, 다만 제2인칭 복수형으로 쓰일 경우에는 (8)에서처럼 제2인칭 표현과 제3인칭 표현을 포괄하는 대명사 **ihr**가 해당 구성체의 뒤에 위치한다고 한다(Jung 1990: 56).

3) 사실 이것이 제1인칭 복수형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3인칭 복수형’을 써도 무방하지만, ‘제1인칭 복수형’을 쓰는 게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8) Er und du / Du und er, ihr werdet kommen.

(9) Er und du / Du und er werden kommen.

이렇게 볼 때, (10)이나 (11)처럼 주어가 제2인칭 표현과 제3인칭 표현이 **und**로 결합되어 있는데도 정동사를 제3인칭 복수형으로 쓴 문장을 무조건 오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제2인칭 복수형을 쓰는 게 일반적이므로, 가급적 이 형태를 쓰는 게 좋을 듯하다.

(10) Du und dein Freund sind heute nicht so glücklich.

(11) Ihr und die Leute haben gestern zu viel gestritten.

괴체/헤스-뤼티히도, 제1, 제2인칭의 **und**-결합체나 제1, 제3인칭의 **und**-결합체가 주어인 두 경우에만 수가 작은 인칭이 수가 큰 인칭을 지배하는 규칙이 항상 적용되고, 제2, 제3인칭의 **und**-결합체의 경우에는 이 규칙이 대체적으로 적용된다고 기술한다. 그런데 이들은 이어서, 사람들이 종종 이 규칙을 어긴다고 하면서, (12)와 (13)을 이 규칙을 어긴 오류의 실례로 들고 있다(Götze/Hess-Lüttich 2005: 503).

(12) \*Ich hoffe, dass du und deine Freundin mitkommen (richtig: *mitkommt*).

(2. + 3. Person)

(13) \*Es ist nicht zu glauben, dass wir und unser Freund das nicht bemerkt habt (richtig: *haben*). (1. + 3. Person)

이들의 문법서가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기술된 것임<sup>4)</sup>을 감안하면, 독일인들이 이 규칙에 어긋난 문장들을

4) "(……) die Art und Weise, in der die Bürger - die Mitglieder unserer

만들어 내는 일이 드물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어를 잘 구사하는 교수자로서는 이렇게 독일인들도 오류를 범할 수 있는<sup>5)</sup> 정동사 형태를 경우에 맞게 정확히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초보 학습자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 한국어에서는 주지하다시피 ‘나는 / 너는 / 그는 / 우리는 / 너희는 / 그들은 공을 던진다.’에서처럼 단일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전혀 관계없이 동사의 형태가 동일할 뿐 아니라, ‘나와 너는 / 나와 너희는 / 너와 그는 / 너와 그들은 공을 던진다’에서처럼 복합 주어의 경우에도 결합된 주어 부분들의 인칭이나 수와 무관하게 동사는 항상 형태가 같다.

초보 학습자로서는 동사 *werfen*을 단일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정확하게 변화시키는 것<sup>6)</sup> 자체도 상당한 노력을 요하는 일인데, 동사 변화의 복잡성이 이에 머물지 않고, *und*를 지닌 복합 주어의 경우에는 구성 주어 부분들의 인칭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도 동사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의욕과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교수자가 미리 독일어와 한국어가 동사 변화에 있어서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그 차이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und*로 결합된 주어 부분들의 인칭이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규칙을 모르는 학습자는, 필연적으로 재귀동사를 써서 문장을 만들 때에도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동사와 마찬가지로 재귀동사의 일부인 재귀대명사도 주어와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데, 주어의 종합적인 인칭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학습자는 재귀대명사도 엉뚱한 인칭의 것을 쓰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오류 문장들을 만들어 내게 된다.

*Sprachgemeinschaft - diese Mittel handhaben (……)*”라고 서문에 기술되어 있는 것에서 드러난다.

- 5) 이런 오류들의 유형별 분류와 분석에 대해서는 Keller 1980: 30 ff. 참조.
- 6) 논의의 편의를 위해 직설법 현재 시제에서 변화시키는 것에 국한시킨다.

- (14) \*Ich und ihr habt euch immer für Sports interessiert.  
 (15) \*Ich und mein Freund werden sich über das Geschenk wundern.<sup>7)</sup>

이 두 문장에서 주어는 종합적으로 제1인칭이므로 재귀대명사도 제1인칭 형태인 **uns**를 써야 한다. 두덴 문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재귀대명사 뿐 아니라 문장 내의 소유대명사도 주어와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실례들을 들고 있다(Wöllstein 2016: 1016).

- (16) Du und ich freuen uns über unseren Erfolg.  
 (17) Wir und du freuen uns über unseren Erfolg.  
 (18) Du und er habt euch über euren Erfolg gewiss gefreut.  
 (19) Du und die anderen habt euch über euren Erfolg gewiss gefreut.  
 (20) Sie und ihr habt euch über euren Erfolg gewiss gefreut.

그런데 여기서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어가 제1인칭 표현과 제3인칭 표현이 **und**로 결합된 구성체인 경우에는 그것의 위치에 따라 재귀동사의 일부인 재귀대명사의 형태가 달라진다. 만약 그런 주어가 재귀대명사의 뒤에 위치하게 되면, 재귀대명사는 제1인칭 형태인 **uns**가 아니라 (21)과 (22)에서처럼 제3인칭 형태인 **sich**이다. 하지만 그런 주어가 재귀대명사의 앞에 오면, 재귀대명사는 (23)과 (24)에서처럼 규칙대로 제1인칭 형태인 **uns**이다(Wöllstein 2016: 1017).

- (21) Fernab vom Verkehr sonnten sich meine Frau und ich.  
 (22) Heute glaube ich, dass sich die Mühe, die sich mein Freund und ich

7) 두 오류 문장을 수정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 (14)' Ich und ihr haben uns immer für Sports interessiert.  
 (15)' Ich und mein Freund werden uns über das Geschenk wundern.

gegeben haben, ...

- (23) ... begaben meine Frau und ich uns im Flugzeug nach Gagra.  
 (24) Mein Büro und ich haben uns für die erste Schreibart entschieden und freuen uns, dass Sie diese als korrekt bezeichnen.

한편 위에서, 주어가 제2인칭 표현과 제3인칭 표현이 **und**로 결합되어 있는 구성체인 경우, 정동사로 제2인칭 복수형뿐 아니라 제3인칭 복수형도 쓰는 것에 관해 기술했었는데, 그 결과 채귀동사가 쓰인 문장에서는 채귀대명사도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고 두덴 문법은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실례를 들고 있다(Wöllstein 2016: 1017).

- (25) Du und die andern habt euch sicher darüber gefreut.  
 (26) Du und die andern haben sich sicher darüber gefreut.<sup>8)</sup>

간혹 다음 두 문장 중 어느 것이 맞는지 물어 보는 학습자가 있다.

- (27) Singen und Tanzen sind sehr interessant.  
 (28) Singen und Tanzen ist sehr interessant.

한편에서는 이런 경우 ‘노래하는 것’과 ‘춤추는 것’이란 두 가지 행위에 대해 진술을 하는 것이므로, 주어는 당연히 복수이고, 따라서 정동사도 복수형이라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27)이

8) 만약 문장 내에 소유대명사가 있으면, 이것도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채귀대명사와 함께 소유대명사도 있는 (18)-(20)은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다:

- Du und er haben sich über ihren Erfolg gewiss gefreut.  
 Du und die anderen haben sich über ihren Erfolg gewiss gefreut.  
 Sie und ihr haben sich über ihren Erfolg gewiss gefreut.



옳은 문장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두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해서, 다시 말해 노래하는 행위와 춤추는 행위 각각이 아니라 노래하고 춤추는 행위를 염두에 두고 진술을 한 것으로 해석해서, 정동사를 단수형으로 쓰는 게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28)이 옳은 문장이다.

헬비히/부샤는 이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일치와 의미상의 일치<sup>9)</sup>를 구별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래 두 문장은 모두 옳은데, (29)에서는 정동사가 주어와 형식적인 일치를 이루어, 복수형을 취하고 있는 반면, (30)에서는 주어와 정동사 사이에 의미상의 일치가 이루어져, 정동사의 형태가 단수형이라고 설명한다(Helbig/Buscha 1996: 29).

(29) Regen und Wind trieben die Leute nach Hause.

(30) Regen und Wind trieb die Leute nach Hause.

따라서 헬비히/부샤에 의하면 (27)과 (28)은 각각 형식적인 일치, 의미상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문장으로서 다 옳은 문장이다. 그런데 헬비히/부샤는 이 두 종류의 일치에 대해 기술하는 자리에서 독일어에서는 형식적인 일치가 의미상의 일치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학습자에게, (27)과 (28)이 다 맞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7)로 쓰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답변을 해 주면 될 것이다.

방금 기술된 내용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 두덴 문법에 나오는데, 여기서 *und* 뒤에 *damit*, *somit*, *mithin* 등이 나오면, 두 번째 주어 부분이 첫 주어 부분과 내용상 밀접한 결합 관계를 이루게 되어, 정동사를 단수형으로도 쓸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을 실례로 들고 있다.

9) 원 용어는 각각 ‘grammatische Kongruenz’와 ‘Synesis’이다.

- (31) Die Arbeit in der EU und damit auch die Vertretung der Interessen der deutschen Wirtschaft stellen / stellt hohe Ansprüche an die deutsche Delegation.
- (32) Da sich zudem durch höhere Umdrehungszahl die Luft-Anströmungsgeschwindigkeit an den Rotorpaddeln und mithin der Auftrieb noch beträchtlich steigern lässt ....

괴체/헤스-뤼티히는, 두 수를 더한 결과가 얼마임을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정동사를 복수형으로 쓰면 안 되고 단수형으로 써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 동사 대신 **sein**을 사용하면, (35)에서처럼 단수형뿐 아니라 복수형도 가능하다고 한다(Götze/Hess-Lüttich 2005: 506).

- (33) Sechs und fünfundzwanzig macht / ergibt einundreißig.
- (34) \*Sechs und fünfundzwanzig machen / ergeben einundreißig.
- (35) Sechs und fünfundzwanzig ist / sind einundreißig.

**und**-결합체가 주어일 때, 이렇게 정동사를 단수로도 복수로도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동사를 단수로 쓰는 것만 허용된다. 이제 이런 경우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36) \*Deutsch zu studieren und jeden Tag zu arbeiten machen mich verrückt.
- (37) \*Dass er mich liebt und dass seine Familie mich mag sind mir sehr gut.

이렇게 두 개의 부정사문이나 두 개의 **dass**-문이 **und**로 결합된 주어가 오는 경우에도 정동사를 복수형으로 쓰는 오류를 범하는 학습자가 적지 않다. 그런데 두툰 문법은, 부정사문과 **dass**-문은 아주 추상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und**로 결합된 구성체는 하나의 단위체로 간주해야 하고, 이에 따라 정동사는 단수형으로 써야

한다고 기술하면서, 다음을 실례로 들고 있다(Wöllstein 2016: 1017).

- (38) Zu Hause sitzen und nichts tun können (……) ist grauenvoll.  
 (39) Einen längeren Text zu lesen und einfachere Rechenaufgaben zu lösen, fällt ihm schwer.  
 (40) Dass Anna schon wieder geschieden ist und dass Otto Konkurs gemacht hat, wurde der Hundertjährigen vorenthalten.

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und**-결합체가 하나의 단위체를 이루기 때문에, 정동사를 단수로 쓴다고 기술한다(Jung 1990: 57).

- (41) Gleich und Gleich gesellt sich gern.  
 (42) An ihm ist Hopfen und Malz verloren.

그런데 이 경우에는 주어가 실제로 가리키는 대상이 복수라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부정사문들이나 **dass**-문들의 결합체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 예컨대 (41)을 두덴 큰사전에서 찾아보면, ‘**Menschen mit gleicher Gesinnung, gleichen [schlechten] Absichten schließen sich gern zusammen.**’으로 풀이되어 있다.<sup>10)</sup> 이런 주어는 흔히 격언이나 관용구 등에서 등장하지만, 괴체/헤스-뤼티히에 의하면 다음처럼 일상적인 텍스트 내의 문장에서도 나타난다고 한다: **Persönliche Integrität und berufliche Qualifikation ist gefragt**(Götze/Hess-Lüttich 2005: 507).

두덴 문법에서는 **und**로 결합된 구성체인 주어와 정동사의 일치가 어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한 사례로 이런 주어가 정동사의 뒤에 위치할 때, 정동사의 형태가 이따금 첫 주어 부분에 따라 정해지는 현상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첫 주어 부분이 단수형이면,

10) Wissenschaftlicher Rat der Dudenredaktion: ‘gleich’ 참조.

(43)과 (44)에서처럼 정동사도 단수형을 취하게 된다.

(43) ... wetteiferte Burgerschaft und ein Teil irgeleiteter Sozialisten ....

(44) Zwischen die drei Deutschen hatte sich nur der Schwede Kjell Sjoberg und der Russe Iwannikow geschoben.

하지만 두덴 문법에서는 비표준 어법에서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고, 표준 독일어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문법서들은 원래 교수를 위해 내지 교수를 염두에 두고 저술된 것이 아니므로, 교수자는 문법서의 내용을 취사선택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교수에 활용하면 된다.<sup>11)</sup>

### III. nicht nur - sondern auch

(45) \*Nicht nur er sondern auch sein Bruder mögen Bier sehr gern.

(46) \*Nicht nur meine Schwester sondern auch ich sind ein bisschen krank.

(47) \*Nicht nur ich sondern auch du haben noch viel Geld.<sup>12)</sup>

이렇게 쓰는 것이 오류라는 설명을 듣는 학습자들은, 주어가 복수라서 정동사를 복수형을 썼는데 왜 틀린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이들이 nicht nur A, sondern auch B ('A뿐 아니라 B도')를 A und B ('A와 B는')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nicht nur A, sondern auch B를 복수 주어로 판단해서, 복수 주어와 일치를 이루는

11) 교수를 위한 문법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에 대해서는 Sitta 1989: 36 ff. 참조.

12) 세 오류 문장을 수정한 문장들은 아래에 나오는데, 각각 (48), (50), (51)이다.

정동사는 당연히 복수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nicht nur - sondern auch가 들어 있는 문장은 단문이 아니라 응축문이고, 따라서 이런 문장에 복수 주어에 있는 게 아니다. 예컨대 (45)를 올바르게 고친 문장인 (48)은 (49)에서 두 부분문의 공통된 부분인 ‘mag Bier sehr gern’이 생략되어 만들어진 응축문으로서, (49)에서 er와 sein Bruder는 각각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48)에서 sondern 뒤의 문장의 주어는 단수이므로, 정동사가 단수형을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48) Nicht nur er, sondern auch sein Bruder mag Bier sehr gern.

(49) Nicht nur er mag Bier sehr gern, sondern auch sein Bruder mag Bier sehr gern.

응축문이란 개념을 어렵게 여기는 학습자에게는, nicht nur - sondern auch가 들어 있는 문장을 ‘A뿐 아니라 B도 ... 한다’로 파악하지 말고, ‘A가 ... 할 뿐 아니라, B도 ... 한다’로 파악하도록 지도해 주면 좋을 듯하다. 이렇게 하면 이런 문장을 보고 복수 주어를 떠올릴 가능성이 줄어들고, ‘B도 ... 한다’를 따로 떼어내어 생각하면, 정동사를 단수형으로 쓸 확률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45)와 (48)을 잘 비교해 보면, 정동사 형태가 다른 것 외에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8)에서는 (45)와 달리 sondern의 앞에 반점이 있다. 이런 구문에서 sondern의 앞에 반드시 반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교수자가 강조해서 가르치면, 학습자가 이런 구조의 문장을 볼 때, 반점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습자가 ‘nicht nur A’ 부분을 ‘sondern auch B ...’ 부분과 분리시켜 문장을 파악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정동사를 올바르게 쓰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45)의 경우에는 정동사만 단수형으로 고치면, 오류가 없어지는 반

면, (46)과 (47)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야 할 거리가 있다. 왜냐하면 (45)와 달리 (46)과 (47)에서는 두 주어의 인칭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미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nicht nur - sondern auch** 구문에서 정동사는 **sondern**의 뒤에 있는 주어와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데, (45)에서는 두 주어 모두 제3인칭이기 때문에 수만 고려하면 되었지만, (46)과 (47)에서는 두 주어의 인칭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인칭도 고려해야 오류가 시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오류 문장을 정정하면 각각 (50)과 (51)이 된다.

(50) Nicht nur meine Schwester, sondern auch ich bin ein bisschen krank.

(51) Nicht nur ich, sondern auch du hast noch viel Geld.<sup>13)</sup>

(52) \*Nicht nur meine Freunde, sondern auch ich mögen Bier sehr gern.

(53) \*Gestern haben nicht nur ich, sondern auch meine Eltern ihn gesehen.

(52)도 위에서 다룬 (45)처럼 정동사를 잘못 쓴 오류 문장인 것은 분명한데, 두 문장의 성격이 좀 다르다. (45)에서는 두 주어가 모두 단수인데 반해, (52)에서는 단수 주어와 복수 주어가 있다. 하지만 (52)를 쓴 학습자도 두 주어의 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nicht nur - sondern auch**가 있으니까, 정동사를 복수형으로 썼을 것이기 때문에, (45)와 (52)는 오류의 성격이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53)의 경우에도 정동사는 **ich**와 일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형태는 단수형 **habe**이어야 한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nicht nur - sondern auch** 관련 오류를 범하는 학습자들은 **nicht nur A, sondern auch B**를 **A und B**와 동일한 것으로

13) 이 두 문장에서 주어들의 위치가 바뀌면, 당연히 다음과 같이 정동사의 형태도 달라지게 된다:

Nicht nur ich, sondern auch meine Schwester ist ein bisschen krank.

Nicht nur du, sondern auch ich habe noch viel Geld.

간주하기 때문에, A와 B의 위치가 바뀐 **nicht nur B, sondern auch A** 역시 **B und A**와 동일한 것으로서 복수 주어라고 판단하게 된다. 어떤 학습자가 이런 판단하에서 아래 (54)를 썼다면, 비록 여기서는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이 학습자는 이 문장이 응축문이고, 이에 따라 정동사는 **sondern** 뒤의 주어의 수에 맞춰 복수형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nicht nur - sondern auch** 구문의 정동사를 틀리게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런 학습자도 오류를 범한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구문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전수받는 것이 좋다.

(54) Nicht nur ich, sondern auch meine Freunde mögen Bier sehr gern.

#### IV. oder

일부 학습자는, 인칭이 서로 다른 두 단수 표현이 **oder**로 결합되어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 제1인칭 표현이 다른 인칭 표현과 결합되어 있으면, 정동사는 제1인칭과 일치를 이루고, 제2인칭 표현이 제3인칭 표현과 결합되어 있으면, 정동사는 제2인칭과 일치를 이룬다고 잘못 알고 있다. 다시 말해 어떤 문장의 주어가 그런 구성체인 경우, 정동사의 형태는 수가 더 작은 인칭의 주어 부분의 인칭에 따라 결정된다고 알고 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한다.

(55) \*Ich oder er habe in dem Spiel gewonnen.

(56) \*Du oder er hast in dem Spiel gewonnen.

사실은 이런 경우에 정동사는 자신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어 부분의 인칭에 따라 형태가 정해져야 한다. 이에 따라 (55)와 (56)을 문

법적으로 옳게 고쳐 쓰면, 다음과 같다.

(57) Ich oder er hat in dem Spiel gewonnen.

(58) Du oder er hat in dem Spiel gewonnen.<sup>14)</sup>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런 유형의 주어와 정동사의 일치에 관한 지식이 없는 학습자들도, 우연히 내지 무의식적으로 수가 더 작은 인칭의 표현을 정동사의 바로 옆에 두면,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55)의 주어 부분들의 위치가 뒤바뀐 주어를 지닌 (59)는 (55)와 동일한 정동사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옳은 문장이며, (60)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59) Er oder ich habe in dem Spiel gewonnen.

(60) Er oder du hast in dem Spiel gewonnen.

이런 유형의 주어와 정동사의 일치에 관한 규칙을 모르면서도 이렇게 오류를 범하지 않은 학습자들에게도 그런 규칙이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해당 규칙을 계속해서 모르고 있을 경우, 언젠가는 (55)나 (56) 같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서 교수자는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다. 교수자는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오류들을 찾아내는 데 전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보듯, 학습자가 해당 규칙을 알지도 못하면서 문법적으로 옳은 구성체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교수자는 의구심이 들 때에는 주저없이 학습자에게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교수자는 틀린 부분들만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옳은 부분

14) 의문문에서는 정동사의 바로 옆에 위치하는 것이 앞 주어 부분이므로, 정동사의 형태는 이것의 인칭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의문문에서는 정동사가 달라진다: Hast du oder er in dem Spiel gewonnen?



들 중에서도 학습자가 해당 규칙을 모르고 있을 것 같은 부분들을 간파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간혹 다음 예문의 부분문처럼 *oder*로 결합된 두 주어 부분이 모두 단수형인데도 불구하고 정동사가 복수형인 문장을 보면, 이 문장이 틀린 것 아닌가라고 질문을 학생들이 있다. 이런 질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oder*의 문법적 기능에, 두 가능성 중에 어느 하나만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능 외에도, 이런 것을 나타낼 뿐 아니라 두 가능성 모두가 고려될 수 있다는 것도 나타내는 기능이 있다<sup>15)</sup>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배제의 *oder* 외에 포함의 *oder*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sup>16)</sup>

(61) Ich glaube, deine Schwester oder ihr Freund können dir helfen<sup>17)</sup>.

앵겔은, 두 단수형 표현이 *oder*로 결합된 구성체가 주어인 문장에서 정동사의 형태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접속사가 배제의 *oder*인가 혹은 포함의 *oder*인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oder*의 기능이 어느 것인가에 따라 정동사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앵겔에 의하면 배제의 *oder*인 경우에는 정동사를 단수형으로 써야 하지만, 포함의 *oder*인 경우에는 정동사를 대개

15) 전자의 경우를 ‘*ausschließendes oder*’라 하고, 후자의 경우를 ‘*einschließendes oder*’라고 하는데, 각각 ‘배제의 *oder*’, ‘포함의 *oder*’로 번역했다.

16) 두덴 문법에서는 전자의 실례로 아래 첫 문장의 *oder*를, 후자의 실례로 아래 두 번째 문장의 *oder*를 들고 있다:

Sie will studieren oder ins Ausland gehen (aber nicht beides).

Du kannst Kaffee oder Wasser bestellen (oder beides oder etwas Drittes).

17) ‘너의 누이가 너를 도울 수도 있고, 그녀의 남친이 너를 도울 수도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 문장임.

복수형으로 쓴다. 이에 따라 화자가 Paul과 Inge 둘 중 어느 한 사람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62)에서는 muss를 써야 하지만, 화자가 Paul이나 Inge나 두 사람 모두가 그랬을 거라고 추정하고 말하는 (63)에서는 müssen을 쓴다고 설명한다(Engel 1996: 815).

(62) Paul oder Inge muss es gewusst haben.

(63) Paul oder Inge müssen es gewusst haben.<sup>18)</sup>

아래 두 예문에서 (64)의 경우에는 oder의 기능이 배제이기 때문에, 정동사가 단수형을 취한 반면, (65)의 경우에는 oder가 포함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동사가 복수형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4) Der Lehrer weiß nicht, ob der Schüler oder die Schülerin lügt.

(65) Übelkeit oder Erbrechen sind die Folge vom Genuss verdorbener Lebensmittel.

한편 두 단수 주어 부분이 포함의 oder로 결합되어 있으면, 정동사를 일반적으로 복수형으로 쓰지만, 이런 경우에 정동사를 단수형으로 쓰더라도 완전한 오류는 아니다.<sup>19)</sup> 그리고 oder가 배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다 더 확실히 나타내기 위해, (66)과 (67)에서처럼 entweder를 추가해서 쓰는데(Wöllstein 2016: 634), 이에 따라 두 주어 부분이 모두 단수인데 entweder가 있는 경우에는 (68)에서처럼 정동사를 항상 단수형으로 쓴다.

18) Engel은 이와 관련하여, 배제의 oder와 달리 포함의 oder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칙이 없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독일어에서는 oder를 지닌 주어가 쓰인 문장에서 정동사를 항상 복수형으로 쓰는 경향이 특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19) 다시 말해 (61)을 다음과 같이 써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Ich glaube, deine Schwester oder ihr Freund kann dir helfen.

- (66) Sie verkauft entweder ihre Bücher oder ihre Klaviernoten.  
 (67) Entweder Sie verlassen den Raum(,) oder wir holen die Polizei.  
 (68) Entweder Paul oder Inge muss es gewusst haben.

이상에서 두 단수 표현이 **oder**로 결합되어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 정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 기술했다. 이제 인칭은 모두 제3인칭인데 수가 서로 다른 두 표현이 **oder**로 결합된 구성체가 주어의 자리에 있을 때 정동사는 어느 것과 일치를 이루는지 살펴보겠다. 이런 구성체가 주어인 문장의 경우 통상 정동사를 복수 주어 부분과 일치를 시켜 복수형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이때 두 주어 부분의 위치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아래 두 예문은 모두 옳은 문장으로 간주된다.

- (69) Der Direktor oder die Angestellten müssen jetzt nachgeben.  
 (70) Die Angestellten oder der Direktor müssen jetzt nachgeben.

그런데 두덴 문법에서는 인칭은 모두 제3인칭인데 수가 서로 다른 두 표현이 **oder**로 결합된 구성체가 주어일 때, 정동사는 보다 더 가까이 위치한 주어 부분과 일치를 이룬다고 기술하고, 다음을 실례로 들고 있다(Wöllstein 2016: 1021).

- (71) Der Vater oder die Geschwister müssen hier die Verantwortung übernehmen.  
 (72) Die Geschwister oder der Vater muss hier die Verantwortung übernehmen.

이렇게 볼 때, (72)는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문장이지만, 두덴 문법에 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문장이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상충하는 두 입장을 감안한 듯, 헬비히/부샤는, 각각 단수와 복수인 두 표현이 **oder**로 결합되어 있는 주어가 있는 문장에서 정동사는

“일반적으로” 복수 표현과 일치룰 이루는데, 해당 표현이 정동사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고 기술한다.<sup>20)</sup> (Helbig/Buscha 1996: 31) 헬비히/부샤가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런 유형의 주어에 있어서 드물지만 정동사가 단수 표현과 일치룰 이루는 경우도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교수자로서는 그 내용이 어렵고 복잡한 사항에 대해 가르치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모두 제3인칭인데 수가 서로 다른 두 표현이 *oder*로 결합된 구성체인 주어와 정동사의 일치처럼, 적용되는 규칙(들)이 통일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가르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어쨌면, 전자는 여러 차례의 반복을 통해 학습을 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후자는 그렇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수자에게는 전자보다 후자가 더 큰 어려움을 주는 것 같다. 이것은 결국 학습자 측에서 보면, 전자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지만, 후자는 노력을 하더라도 명확한 정보를 획득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모두 제3인칭인데 수가 서로 다른 두 표현이 *oder*로 결합된 구성체인 주어와 정동사의 일치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알려줄 수밖에 없을 듯하다. 복수 표현이 정동사의 바로 앞에 있을 때는 정동사는 복수형만 쓸 수 있고, 단수 표현이 정동사의 바로 앞에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복수형을 쓰지만, 단수형을 쓸 수도 있다. 이것을 실례를 들어 나타내 보이면 다음과 같다.

(73) Der Arzt oder die Patienten kommen heute zu mir.

(74) \*Der Arzt oder die Patienten kommt heute zu mir.

(75) Die Patienten oder der Arzt kommen heute zu mir.

20) 실례로 다음 두 문장을 들고 있다.

Günter oder seine Kameraden haben die Aufgabe gelöst.

Sein Meister oder seine Arbeitskollegen haben ihm das Buch gebracht, als er nicht zu Hause war.

(76) <sup>△</sup>Die Patienten oder der Arzt kommt heute zu mir.

만약 주어 외의 문장성분이 첫 자리에 오면, 복수 표현이 정동사의 바로 뒤에 있을 때는 정동사는 복수형만 쓸 수 있고, 단수 표현이 정동사의 바로 뒤에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복수형을 쓰지만, 단수형을 쓸 수도 있다. 이것을 실례를 들어 나타내 보이면 다음과 같다.

(77) Heute kommen der Arzt oder die Patienten zu mir.

(78) <sup>△</sup>Heute kommt der Arzt oder die Patienten zu mir.

(79) Heute kommen die Patienten oder der Arzt zu mir.

(80) \*Heute kommt die Patienten oder der Arzt zu mir.

## V. 맺는 말

퐁크/코니히에 의하면, 독일어의 문장구조 내지 규칙이 학습자의 모국어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이 독일어 문법에 대한 설명의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Funk/Koenig 2009: 82). 따라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습자에게 독일어 문법에 대해 설명할 때, 그 규모는 독일어와 같은 어군에 속하는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습자를 위한 설명보다 전반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독일어 문법 사항들 중에서 한국어에 상응물이 없는 것들의 경우에는 설명의 규모뿐 아니라 각 세부 설명의 심도도 아주 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지나친 것으로 여기는 입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인 학습자가 이런 문법 사항들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는 비율이 다른 문법 사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해당 사항들에 대한 교수자의 설명이 광범위하고 자세할수록, 학습자는 그만큼

더 많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교수자가 이런 문법 사항들 중의 하나인 독일어의 주어와 정동사 일치에 대해 부족함이 없이 설명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오류들을 예리하게 간파할 수 있으려면, 해당 일치에 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교수자가 이런 지식 기반을 갖추는 데 본고의 논의가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Bußmann, H. (Hrsg.) (2008): *Lexikon der Sprachwissenschaft*. 4., durchges. u. bibliog. erg. Aufl. Stuttgart: Kröner.
- Engel, U. (1996): *Deutsche Grammatik*. 3. Aufl. Heidelberg: Groos.
- Funk, H./Koenig, M.(저), 권영숙(역) (2009): 『문법 가르치고 배우기』. 한국문화사.
- Götze, L./Hess-Lüttich, E. (2005): *Grammatik der deutschen Sprache. Sprachsystem und Sprachgebrauch*. München: Wissen Media.
- Helbig, G./Buscha, J. (1996): *Deutsche Grammatik. Ein Handbuch für den Ausländerunterricht*. 17. Aufl. Leipzig u. a.: Enzyklopädie.
- Jung, W. (1990): *Grammatik der deutschen Sprache*. 10., neubearb. Aufl. Mannheim/Leipzig: Bibliographisches Institut.
- Keller, R. (1980): Zum Begriff des Fehlers im muttersprachlichen Unterricht. In: Cherubim, D. (Hrsg.): *Fehlerlinguistik. Beiträge zum Problem der sprachlichen Abweichung*. Tübingen: Niemeyer, 23-42.
- Sitta, H. (1989): Anforderungen an Grammatiken unter pädagogischer und linguistischer Perspektive. In: Buscha, J./Schröder, J. (Hrsg.): *Linguistische und didaktische Grammatik. Beiträge zu Deutsch als Fremdsprache*. Leipzig: Enzyklopädie, 29 - 39.
- Wissenschaftlicher Rat der Dudenredaktion (Hrsg.) (2000): *Duden. Das*

*große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in zehn Bänden.* Mannheim: Bibliographisches Institut.

Wöllstein, A. (Hrsg.) (2016): *Die Grammatik. Unentbehrlich für richtiges Deutsch.* 9. Aufl. Berlin: Bibliographisches Institut.

<Zusammenfassung>

### **Unterricht über Subjekt-Verb-Kongruenz im Deutschen**

Jun, Gyung-Jae (Hanyang Univ.)

Im Deutschen hat die grammatische Kongruenz drei wichtige Bereiche: die verbale, die nominale und die prädikative Kongruenz. Bei der verbalen Kongruenz muss das finite Verb in Person und Numerus mit dem Subjekt übereinstimmen. Da die koreanische Sprache solche Subjekt-Verb-Kongruenz im Deutschen nicht kennt, bereitet diese koreanischen Deutschlernern besonders bzw. zumindest in der Anfangsphase beträchtliche Schwierigkeiten. Daraus ergibt sich, dass die Subjekt-Verb-Kongruenz eine der häufigsten Fehlerquellen darstellt. Die Anfangsschwierigkeit koreanischer Deutschlerner wird dadurch größer, dass es bei der Subjekt-Verb-Kongruenz auch in der Standardsprache Schwankungen gibt. Das gilt insbesondere für den Fall, dass es sich bei dem Subjekt um ein syndetisches handelt.

In der vorliegenden Studie wurde darauf eingegangen, auf welche Art und Weise das finite Verb mit dem Subjekt, das aus durch eine nebenordnende Konjunktion verbundenen Teilen besteht, in Person und Numerus abstimmt. Wenn ein Subjekt der 1. und ein Subjekt der 2. bzw. 3. Person durch *und*

miteinander verbunden sind, steht das finite Verb immer in der 1. Person Plural, jedoch bei der Koppelung der 2. und 3. Person durch *und* steht es oft in der 2. Person Plural, manchmal aber auch in der 3. Person Plural. Handelt es sich bei der Beziehung des finiten Verbs zu den zwei durch *und* verbundenen Singularen als Subjekt um Synesis, so steht es im Singular. Bei *nicht nur - sondern auch* richtet sich das Finitum nach dem Numerus und der Person des Ausdrucks hinter *sondern auch*, weil hier nicht ein einfacher, sondern ein zusammengezogener Satz vorliegt. Wenn zwei singularische Subjekte durch *oder* verbunden sind, ist zwischen dem ausschließenden und dem einschließenden *oder* zu unterscheiden; beim Ersteren steht das finite Verb im Singular, beim Letzteren meist im Plural.

**Stichwörter:** Kongruenz, Person, Numerus, Finitum, zusammengezogener Satz

- 논문투고일: 2017. 10. 24
- 심사완료일: 2017. 12. 16
- 게재확정일: 2017. 12. 20

- E-Mail: [gjjun@hanyang.ac.kr](mailto:gjjun@hanyang.ac.kr)
- 주소: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K C I